



고난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온기

오신혜

아침 6시,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렸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거리는 현지 사람들로 붐볐다. 난생 처음 보는 아프리카의 풍경이었다. 셔틀버스에서 내다본 풍경은 다소 위험해 보였다. 잠시 현지 풍경에 정신 팔려있을 때 셔틀버스는 진흙 구덩이가 가득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낡은 버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차는 흔들렸고, 차가 구덩이에 박히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하지 않았다. 어쩐지 봐서는 안될 장면을 무심코 봐버린 기분이었다. 단번에 위험이 느껴졌다.

갑작스레 바뀐 비행기 일정으로 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다. 간밤의 야간비행으로 전혀 쉬지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몸의 밸런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테라스 밖으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볕이 상냥하게 거리를 비추었고 테라스 밖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일상의 기운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내려다보면서 이들은 어떤 일로 분주한 것일까 점점 궁금해졌다. '정말 위험한 걸까?', 잠깐이라도 도시를 느껴보고 싶은데, 혼자 나가도 될까?



일단 대충 챙겨 입고 가방에는 핸드폰만 넣었다. 호텔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볼 참이었다. “여기 둘러보고 싶은데 혼자 걸어 다녀도 괜찮은가요?” “네, 가방만 잘 간수하시면 돼요. 근처에 쇼핑몰 있으니 가보셔도 좋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도착한 터라 이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직원이 괜찮다고 하니 일단 호텔 밖으로 나왔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흰 가운으로 몸 전체를 두른 여성분이 다가왔다. “돈 좀 주세요.” 등 뒤의 아이를 가리키면서 손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손을 모으고 가볍게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웬지 지금이 에티오피아의 명절 시즌인가 싶었다. 교차로 건너편에서 비치는 흰색 가운을 온몸에 두른 사람들이 공원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해피 에티오피아 뉴 이어”라는 홍보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고, 가는 곳마다 노란색 리본이나 색줄로 장식되어 있었다. 건너편의 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풍물 시장이라도 열린 건지 궁금해져서 교차로를 건너려는데, “헬로우!”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몇 발자국 멀리서 들렸다. 아, 갓난아이와 함께 있던 아이 엄마가 나를 다시 발견하고는 인사하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갑고 경쾌하게 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었다. 잠깐 전에 만난 사람에게 저렇게 반가워하다니. 아마

도 나는 그녀의 다정하고 유쾌한 뜻밖의 인사 때문에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던 것 같다. 눈치껏 현지인들을 따라 달리는

차를 피하면서 흙먼지가 날리는 도로를 건넜다. 길을 건너자마자 성당의 푸른색 돔이 멀리 보였고, 돔을 중심으로 좌우로 에티오피아 국기의 삼색으로 장식된 깃발이 걸려 있었고, 비치는 흰색 스카프를 머리부터 온몸에 감은 행인들이 돔을 향해 걷고 있었다. 주변의 좌판에서는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물건들을 펼쳐놓고 팔고 있었다. ‘아, 크리스트교 행사가 있나 보구나. 근데 에티오피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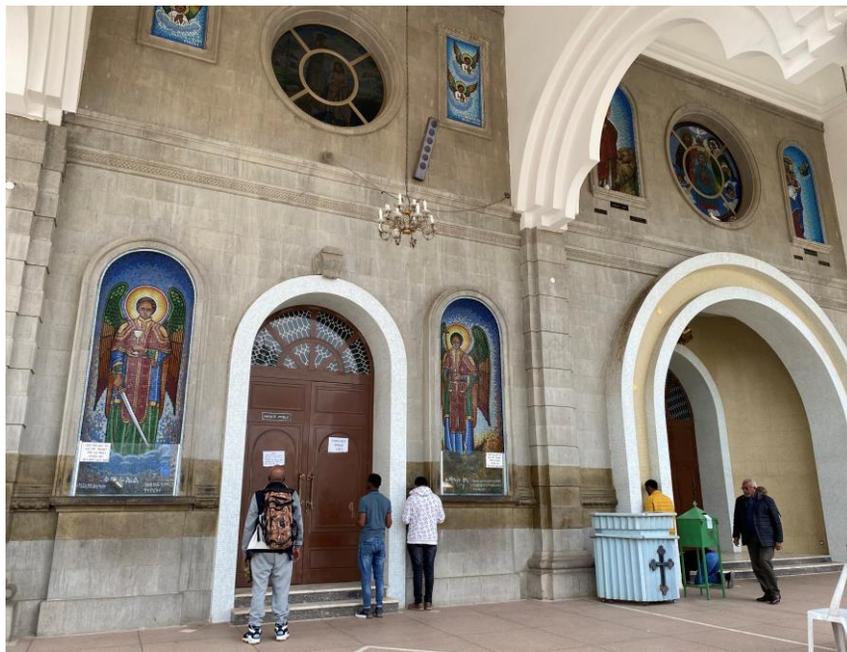
크리스트교인가?’

신도들과 함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압도되기 시작했다. 커다란 분수 너머로 커다란 규모의 성당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성당인 볼레 지역의 메르하네알렘 (Medhanialem) 교회였다. 에티오피아의 인구 절반이 믿는 터와흐도(Tewahedo) 정교회 소속 건물이었다.

한 사내가 목발을 짚으면서 다가왔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자신의 불편한 한쪽 다리를 보여주면서,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줄 수 있는지 묻는 것 같았다. 안타까웠지만 나는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죄송하

다고 두 손을 모으면서 말했다. 그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뭐지? 왜 이렇게 공손하지?’ 이것은 분명히 내가 소위 생각하던 ‘구걸’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구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무례한 떼쓰기였다. 게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태도가 돌변하여 안면몰수하거나 욕을 할 수도 있다. 갓난아이 엄마나 목발을 짚은 남자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되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일까. 이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분노나 배신을 느낄 수 없었다. 성당으로 오는 동안에 보았던 길거리의 사람들은 여유롭게 나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조

용히 다가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되 강요하거나 떼쓰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던 사람들, 신에게 온몸으로 기도를 드리며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꼬마가 다가와서



간만에 영혼을 정화하고 있던 이방인의 침묵을 깬다. 나를 보자마자 돈을 달라는 게 아닌가. ‘하아, 참... 꼬마 녀석까지 돈을 달라네...’ 나는 내 가방을 속까지 다 뒤집어 보여주면서 “봤지? 줄게 없어.” 조금 귀찮은 투였다.

산통이 잠시 깨졌지만 나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 서서 가볍게 인사드리고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 들고 자기만의 기도문을 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옆에서인가 시선이 느껴졌다. 아까 그 꼬마가 입가에 잔뜩 장난기를 머금고는 기둥 뒤에 숨어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 뭐지?’ 하는 차에 꼬마가 반대쪽 기둥으로 쩍쩍 달려가서는 반쯤 몸을 감추고 몰래 나를 쳐다봤다. ‘숨바꼭질 놀이하자는 거구나!’, ‘그럼, 놀아줘야지’ 나는 기둥 뒤에 숨은 꼬마를 잡는 시늉을 했고, 꼬마는 까르르 웃더니 기둥 왼편으로 돌다가 오른편으로 돌면서 우리는 술래잡기를 했다. 주변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노는 걸 보고 재밌어하는 눈치였다.

성당의 기둥을 잡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나는 순간, 갑자기 날아든 천진한 아이의 행동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꼬마는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랑 놀고 싶었던 거였다. 그저 이방인이 신기해서 호기심에 다가왔던 거였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순수할 수 있을까. 나는 꼬마를 불렀다. 내가 “포토, 포토”를 외치자 귀여운 녀석이 바로 다가와서는 스스럼없이 내 목에 팔을 두르고는 포즈를 취했다. 돈 달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이방인에게 하는 환대 인사인가?

혼란스러웠다. 기분 좋은 혼란스러움이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데없는 환대를 받았다. 그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니. 이곳의 사람들이 보여준 순수함과 천진함 때문인지 온몸에 감동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척이나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따스한 기분과 그간의 괴로움



과 걱정들이 온몸에서 전부 떨겨져 나가면서 감사함으로 떨리는 기분이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길 위의 천사들이 아니었을까. 순수한 환대에 무장 해제된 상태로 호텔 앞 골목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또박또박 들리는 한국어였다. 왼편의 노상 주차장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쳐다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어로 대답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남자가 영어로 말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고,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셔봤냐고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허름한 노상 주차장 한 복판에 앉아서 젊은 남성 두 명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주차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간이로 만든 텐트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는 노상카페 같았다. 그들은 본인들의 차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택시 운전기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호리병처럼 생긴 투박한 토기 모양의 주전자에서 진한 색의 커피가 내 잔으로 따라졌다. 그는 한국인 손님을 꽤 태웠다고 했다. 에티오피아에 일하러 온 한국인들이 많다는데.

“근데 제가 한국인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응,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코가 높고,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머리카락이 굵어요” “근처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택시에 많이 태운다고 했다. IT나 전자제품 관련한 한국 회사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한국문화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 꽤나 많이 익숙한 것 같았다. 낯설면서 반가운 기분! 나는 모르지만 나에 대해 잘 알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사람이 뜻밖의 선물처럼 내게 다가온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조인 루시에 대한 이야기며, 유명한 인류학 박물관, 곧 맞이할 명절에 관한 얘기, 한국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대가 파병 왔던 이야기, 그리고 근처에 맛있는 에티오피아 커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었다. 아주 잠시 머무는 낯선 이방인에게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환대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대한 은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이다.

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순수한 환대로 이방인을 경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놀라웠다. 뜻밖의 낯선 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전해주는 편안하고 은은한 안정감이 온몸에 감돌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낯선 누군가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경계 없이 대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였다. 이곳에서 아무도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